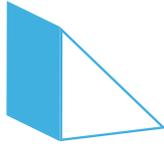


수



능



특



강



신석정, 「들길에 서서」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비유적, 의지적, 희망적
- 제재 : 들길
- 주제 :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굳센 삶의 의지와 이상 추구

#EBS

해제

이 작품의 화자는 저문 들길에 서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삶에 대한 밝고 건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작품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두 세계를 대립시키고 있는데, 하나는 '시적 자아가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곳은 이미 어두워진 공간이고, 뼈에 저리도록 생활이 슬픈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속의 '나'는 결코 연약하지 않아 푸른 산과 같이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살고 있다. 두 번째 세계는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이 있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미래에 다가올 것이기에 고달픈 현재가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주제

굳센 삶의 의지와 이상 추구

구성

- ▶ 1~2연: 푸른 하늘을 우러르며 사는 숭고한 삶
- ▶ 3~4연: 지구를 디디고 사는 기쁜 삶
- ▶ 5~6연: 푸른 별을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삶



신석정, 「들길에 서서」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 화자와 동일시된 대상 ↳ 이상, 희망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 이상과 희망을 지닌 긍정적인 삶의 태도

↳ 설의법(의미 강조) : 희망을 품은 삶의 가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 짧은 패기, 굳센 의지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 끈이지 않고 계속됨

↳ 말줄임표를 통해서 여운 형성, 의미 강조 (연약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굳세게 살아야겠다는 의지)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 희망을 품고 굳센 의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 설의법(의미 강조)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 고통스러운 현실에도 절망하지 않는 강한 의지, 긍정적 태도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 부정적 현실(일제 강점기) ↳ 희망, 이상

↳ 청유형(의지, 소망, 권유 강조),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강조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부정적 현실에서도 희망을 품는 것

↳ 희망을 품은 삶의 가치



작품의 특징

- 모순된 모습을 통해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냄
- 직유법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을 형상화
- 생각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여운을 줌
- 대조되는 이미지를 지닌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강조
-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직설적으로 표현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현실 비판적, 애상적
- 제재 :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
- 주제 :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 비판

#EBS

해제

이 작품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성을 상징하는 '구자명 씨'를 통해 여성들의 고달픈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이 시의 화자는 출근 버스에 오르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구자명 씨의 모습을 관찰하며 가사와 직장 일의 이중 노동에 시달리는 구자명 씨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구자명 씨의 고단한 일상을 제시하면서, '부처님', '팬지꽃', '안개꽃' 등에 비유하여 구자명 씨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구자명'이라는 한 개인의 모습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 여성 전체의 모습으로 시상을 확장하면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여성의 고단한 삶과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구성

- ▶ 1~10행: 출근 버스에서 졸고 있는 구자명 씨
- ▶ 11~16행: 밤늦게까지 가족 때문에 잠을 설치는 구자명 씨
- ▶ 17~24행: 여자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정의 인식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 씨」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 집안일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현대 여성의 전형

일곱 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한다

↳ 현대 여성의 고달픈 삶의 모습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 집(구체적인 지명으로 현실성을 높임) ↳ 직장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 삶의 고단함이 졸음으로 표현됨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 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볼 삶의 여유가 없는 구자명 씨의 삶(힘겨운 삶), 진달래(봄) → 밤꽃(여름)계절의 변화(세월의 흐름 의미)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 봄 ↳ 여름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 구자명 씨 비유 : 주변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의 비유(인내와 희생의 이미지)

그래 저 십 분은 /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운율 형성, 의미 강조, 여성의 고단한 삶 강조)

그래그래 저 십 분은 /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성의 힘겨운 삶이 구체적으로 제시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 잠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 화자의 태도 변화

↳ 구자명 씨 비유 : 흔하게 볼 수 있고 키가 작음(구자명 씨의 모습과 연결됨)

식탁에 놓인 **안개꽃** 명에 /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 구자명 씨 비유 : 작고 소박하며 다른 꽃을 돋보이게 함(구자명 씨의 모습과 연결됨)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 /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 여성에게 밀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



작품의 특징

- 비유적인 표현(부처님, 팬지꽃, 안개꽃)으로 대상의 처지를 나타냄
- 대상의 처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공감을 획득함
- 개인의 모습을 보편적인 모습으로 확장(구자명 씨→여자)하면서 주제 의식을 드러냄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 여성의 힘겨운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강조



한용운, 「해당화」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여성적, 서정적, 애상적, 상징적
- 제재 : 해당화
- 주제 : 임과의 재회를 바라며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EBS

해제

이 작품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돌아오겠다는 기약을 어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임이 화자를 떠나가며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겠다고 약속했기에, 화자는 봄이 빨리 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봄은 벌써 깊었지만 임은 오지 않았고, 서글픔에 젖은 화자는 이미 피어 버린 해당화 꽃잎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경어체를 활용한 섬세한 어조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돌아올 기약을 어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구성

- ▶ 1연: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온다던 임이 오지 않음.
- ▶ 2연: 이미 피어 버린 해당화를 보며 눈물을 흘림.



한용운, 「해당화」

재회의 상징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기다림의 대상, 조국광복 약속의 매개물 경어체 어미 : 운율 형성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다 두려워합니다**.
재회에 대한 갈망 원망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화자의 상황과 대조 피고 지는 자연 현상을 통해 입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 봄을 인정하기 싫은 태도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그러.
화자의 마음을 몰라줌 화자가 여성임을 암시

시름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입에 대한 야속함 표현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재회하지 못 함에 슬픔

작품의 특징

-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자연물을 통해 주제 강조
- 경어체 어미의 각운을 통해 운율 형성
- 해당화가 피고 지는 자연현상에 빗대어 입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
- 화자는 해당화가 피는 봄이 되었음에도 오지 않는 입에 대해 슬픔의 정서를 드러냄
- 봄이 되어도 오지 않는 입으로 인해 화자는 꽃이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함.



박재삼, 「한(恨)」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고백적, 애상적, 영탄적
- 제재 :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 주제 : 임에게 다갈수 없는 한

#EBS

해제

이 작품은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서러운 사랑을 임이 계신 저승에서라도 감나무 가지처럼 뻗어 가서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 시이다. 그러나 화자는 마음속에 품은 서러운 빛깔의 사랑의 열매를 임이 보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모든 서러움이자 소망이 응축된 것임을 임이 알아주리라는 확신조차 가질 수 없기에 또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자연물을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표현한 점, 영탄적 진술을 반복하며 애상감을 강조한 점 등이 특징적인 작품이다.

주제

임에 대한 사무치는 사랑의 한과 그리움

구성

- ▶ 1연: 서러운 노을빛 감처럼 익은, 임에 대한 사랑
- ▶ 2연: 감나무 가지로 뻗어 가 저승에서라도 임에게 전하고픈 사랑
- ▶ 3연: 자신의 사랑을 임이 알아주거나 할지 모르는 데서 느끼는 서러움



박재삼, 「한(恨)」

감나무쥬 되라, /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 나와 그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 ↳ 서러움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 감 ↳ 명탄법(강조), 도치법

이것이 제대로 벌을 데는 지승밖에 없는 것 같고

↳ 감나무 ↳ 임이 죽었음을 암시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벌어 가서

↳ 입을 훑아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 사랑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하고 싶은 소망

그러나 그 사람이 /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 그 사람의 마음에 담고 싶었던(사랑했던)

↳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싶으나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 → 회의적(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 느낌이 북받쳐서 벅참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 서러운 노을빛(붉은색) → 그 사랑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인 것을

↳ 그 사랑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화자가 소망했던 것이고 한(恨)의 이유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 내 사랑과 그리움을 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그러나 마음이 전달될지는 회의적)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 그 사람도 화자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한의 정서)



작품의 특징

- 느낌표를 활용한 영탄적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
- 유사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운율 형성, 의미 강조
- 자연물인 감나무를 통해 입에 대한 애절한 한의 정서를 형상화



박용철, 「떠나가는 배」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서정적, 의지적, 낭만적
- 제재 : 이별
- 주제 : 비참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 쫓겨 떠날 수밖에 없는 비애

#EBS

해제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서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비애를 담고 있다. 시대적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쫓겨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나 두 야'와 같은 의도적인 띄어쓰기는 '낯설게하기'를 통해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고향과 정든 사람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애

구성

- ▶ 1연: 고향을 떠나려는 마음
- ▶ 2연: 고향에 대한 애정과 미련
- ▶ 3연: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와 미래에 대한 불안
- ▶ 4연: 고향을 떠나려는 마음



박용철, 「떠나가는 배」

나 두 야 간다

↳ 띄어쓰기를 통해 망설이는 심정을 강조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 설의

나 두 야 가련다

↳ 반복

아늑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 설의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 직유

↳ 눈물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땀부리 모양

↳ 익숙한 산꼭대기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 미연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 짓는다 → 짐짓 휘방하다(의인)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 머무른 곳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작품의 특징

- 의도적인 띄어쓰기로 화자의 아쉬움과 망설임, 떠나려는 의지를 드러냄.
- 시행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강조함
-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미연과 아쉬움을 강조함
- 영탄법을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수미상관 기법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 자신의 처지를 '배'에 빗대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울분을 그림.



김용택, 「들국」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어조 : 그리움과 푸념의 어조
- 제재 : 들국화
- 주제 :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한없는 기다림

#EBS

해제

이 시의 화자는 가을이 깊어 가도록 서리를 맞으며 들뜬에 피어 있는 들국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부질없이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비되는 화자의 쓸쓸하고 허망한 심정이 시 전반에 깔려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막막한 기다림

구성

- ▶ 1~9행: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조적인 화자의 마음
- ▶ 10~15행: 임이 없는 상태의 암담하고 막막한 심정
- ▶ 16~19행: 부질없는 기다림의 허망함과 안타까움



김용택, 「들국」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 아름다운 자연(화자와 대조) ↳ 사투리(방언)

뭐한다요. 산 아래 /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 아름다운 자연(화자와 대조)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안 /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 시각적 이미지

당신 안 오는데 뭘 헛짓이다요 /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다요

↳ 님의 부재

뭘 소용이다요.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한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 직유

허연 서리만 끼어 가고 / 저 달 금방 저 불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텅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 이 가을 다 가도록

↳ 직유

↳ 계절적 배경

서리 발에 하얀 들국 으로 피어 있으면 / 뭐한다요, 뭘 소용이다요.

↳ 그리움



작품의 특징

- 그대에게 말을 건내는 방식
- 사투리 사용으로 향토성이 드러남
- ‘머한다요’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
- 아름다운 자연물과 화자의 심정대비
- 의인법 표현 (억새꽃 하얀 손짓)
- 시각적 이미지(색채) 사용 - 하얀/물 빛



정지용, 「백록담」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 성격 : 산문적, 신비적, 묘사적
- 제재 : 백록담
- 주제 : 백록담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운 경치

#EBS

해제

이 작품은 한라산의 풍경과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가 한라산의 정상에 이르는 과정과 정상에서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화자는 한라산에서 어미를 여인 송아지를 보면서 일제 강점기에 정체성을 잃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으며, 백록담의 맑고 순수한 모습에서 몰아의 경지를 느끼고 있다.

주제

한라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백록담에서 느끼는 신비로움

구성

- ▶ 1연: 절정에 가까이 와서 기진함.
- ▶ 2연: 휴식을 취함.
- ▶ 3연: 자작나무를 봄.
- ▶ 4연: 도체비꽃을 봄.
- ▶ 5연: 해발 육천 척 위에서 마소를 만남.
- ▶ 6연: 어미를 여인 송아지를 보고 슬픔을 느낌.
- ▶ 7연: 한라산을 오르다가 아롱점말을 마주침.
- ▶ 8연: 동물들이 여러 식물을 취하며 살아감.
- ▶ 9연: 백록담을 보며 몰아의 경지를 느낌.



작품의 특징

- 산문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며 내재율을 형성함.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한라산 등반 과정을 묘사함.
- 객관적 외경을 시인의 새로운 시선으로 정돈하며 주관적 내면을 드러냄.
- 시각·청각·후각 등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한라산의 자연물을 생생하게 묘사함.
- 자연과의 합일(合一), 몰아(沒我, 자기를 잊은 상태)의 경지 등 동양적 세계관이 드러남.
- 일제 강점기 현실을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한라산 백록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맑고 깨끗한 정기와 정신을 생각하고 고된 등반의 과정을 이겨내고 백록담에 오른 것은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수 있다.



정지용, 「백록담」

1
 절정(絶頂)에 가까울수록 삐죽채꽃 키가 점점 소모(消耗)된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
↳ 한라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삐죽채꽃이 작게 보이는 모습을 표현함. ↳ 지면에 꽃무늬처럼 박힌 듯이 보임(백록담 등반 과정을 삐죽채 꽃의 키 높이 변화를 통해 나타냄).
 고 나중에는 얼굴만 가웃 내다본다. 화문(花紋)처럼 판(版) 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삐죽채 키는 아주 없어
↳ 직유법 ↳ 한라산의 정상을 국토의 분단인 '함경도 끝'과 비교하여 제시함.
 지고도 팔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星辰)처럼 난만(爛漫)하다.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삐죽채 꽃밭에서 별들이 커든
 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 꽃을 별의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함.
↳ 기운이 다해 힘이 없어짐.

2
 암고란(巖古蘭), 환약(丸藥)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 암고란의 열매를 먹고 기운을 차림
↳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여 작고 둥글게 빚은 약(기진한 환자에게 기운을 준다는 의미 내포).

3
백화(白樺) 옆에서 백화가 축루(觸露)*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흰 것이 송없지* 않다.
↳ 자작나무 ↳ 살아 있는 자작나무와 죽은 자작나무가 함께 있음.

4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도깨비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남.
↳ 산모퉁이의 휘어 들린 곳
↳ 도깨비꽃을 닮아 도깨비꽃이라고도 불림.

5
 바야흐로 해발 육천 척 위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 소를, 송아지가
↳ 화자의 위치 ↳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살아감.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6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얼결에 산길 백 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윈 송아지는
↳ 새끼를 낳느라 힘든 암소 ↳ 암소가 새끼를 낳고 멀리 떠남 ↳ 민족의 정체성을 잃은 우리 백성들을 상징함
 움매에 움매에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어 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모색(毛色)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
는 울었다.
↳ 어미를 잃은 송아지가 다른 어미에게 맡겨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고 일제 강점기에 정체성을 잃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떠올리며 슬퍼함.

7
풍란(風蘭)이 풍기는 향기, 피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
가 구길 때 쇠아 쇠아 술 소리, 물푸레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칠향출 기여간 흰 돌바기* 고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점말이 피하지 않는다.
↳ 후각, 청각,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한라산의 자연물을 생동감 있게 묘사

8
고비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샷샷나물 대풀 석용(石茸) 별과 같은 방울을 달은 고산 식물을 새기며 취(醉)하며 자며 한다. 백록
↳ 한라산에 서식하는 다양한 식물들 ↳ 동물들이 한라산의 다양한 식물을 먹으며 살고 있음.
 담 조찰한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늦녋*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 맑고 깨끗한
 불인 채로 살이 붓는다.

9
 가재도 기진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구(不具)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 온 실구름 일말
↳ 맑고 깨끗한 백록담에 하늘이 비친 모습 ↳ 힘들게 정상까지 올라오느라 지친 모습 ↳ 작은 구름에도 호려질 정도로 백록담이 맑고 깨끗함
 (一抹)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진 백록담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祈禱)조차 잊었더니라.
↳ 물아의 경지를 느낌

* 축루: 해골.
 * 흰 돌바기: 흰 돌 박힌.
 * 송없지: 말이나 행동 따위가 불쾌할 정도로 흉하지.
 * 늦녋: 빗발이 굵고 끈게 뻗지며 내리쏟아지는 모양.



정희성, 「저 산이 날더러 - 목월 시운을 빌려」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사실적, 향토적, 현실 비판적
- 제재 : 산
- 주제 : 화자가 처한 힘든 삶의 현실

#EBS

해제

이 작품은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의 시상 전개 방식과 유사한 전개 방식을 통해 힘들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이다.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는 화자의 소망을 '산'이 화자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작품은 '산'이 화자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형식을 통해 화자가 처한 힘들고 비참한 삶의 현실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주제

화자가 처한 힘든 삶의 현실

구성

- ▶ 1~2행: 산이 흙이나 파먹으라고 함.
- ▶ 3~5행: 산이 썩이 되라고 함.
- ▶ 6~9행: 산이 썩국새마냥 올라고 함.
- ▶ 10~13행: 산이 아버, 에미처럼 올라고 함.
- ▶ 14~15행: 산이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고 함.



정희성, 「저 산이 날더러 - 목월 시 운을 빌려」

산이 날더러는

↳ 절대적 존재, 운명의 주관자로 설정됨.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 '산'이 화자(나)에게 명령하는 형식, 산이 실제로 말을 할 수는 없으므로,

↳ 이 화자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려, 화자 자신의 삶의 현실을 나타냄(화자는 흙속에서 고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

↳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 태도가 반영됨.

날더러는 살이나 들라 하고

↳ 고된 노동을 뜻함.(대유법)

쑥굴형에 박혀

↳ 힘든 공간, 소외된 공간.

쑥이 되라 한다

↳ 보잘 것 없는 존재.

늘퍼진 날 산은

↳ 지치거나 힘이 없어 몸이 늘어짐.

쑥국새 울고

↳ '산비둘기'의 방언. 옛날 가난한 시골에 시어머나가 무서워 쑥국도 못 먹고 굶어 죽은 머느리가 쑥국새가 되어 봄이 되면 구슬땀 운다는 설화 차용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는

↳ 산과 화자의 거리감.

쑥국새마냥 올라 하고

↳ 화자가 외로운 존재로 제시됨.(화자와 동일시되는 쑥국새로 화자의 정서를 실화함.)

흙 파먹다 죽은 아버지

↳ 화자의 아버지도 고달프게 노동을 하며 살다가 죽었음을 알 수 있음.

뚝주림에 지쳐

쑥굴형에 나자빠진

에미처럼 올라 한다

↳ 화자의 어머니도 가난함 속에서 고달프게 살았음을 드러냄.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 수미상관(시상 전개 형태에 시적 안정감을 주며, 주제를 강조, 여운을 형성, 운율을 형성함)



작품의 특징

- 수미상관의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며 의미를 강조함.
- 산이 화자에게 하는 말을 전달하는 형식의 말투를 활용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함.
- 직유법을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냄.
-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리듬감을 드러냄.



박남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상징적, 주지적, 대조적
- 제재 : 할머니와 꽃씨
- 주제 :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

#EBS

해제

이 작품은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 속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방공호'로 상징되는 전쟁과 그 위에 핀 '채송화'의 대조를 통해 전쟁이라는 파괴적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연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꽃씨'를 받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생명에 대한 애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전쟁의 폭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

구성

- ▶ 1연: 방공호 위에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시는 할머니
- ▶ 2연: 방공호 앞에서 노여워하시는 할머니
- ▶ 3연: 전쟁의 비극에 대한 꾸념
- ▶ 4연: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 없는 화자
- ▶ 5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꽃씨를 받으실 할머니



박남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 생명, 희망 상징

방공호 위에 / 어찌다 핀

↳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 - 전쟁 중임을 알 수 있는 시어

채송화 꽃씨를 받으시다. → 작고 보잘 것 없는 꽃 - 조그만 생명 상징

호(壕) 안에는 /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 전쟁의 비정함 및 생명 경시 태도를 부정하는 행위

말이 숫제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 전쟁의 비정함에 대한 분노

— 진작 죽었더라면 / 이런 풀 / 저런 풀 → 잔인한 전쟁의 참상

다 보지 않았으련만…… → 전쟁의 비참함에 대한 할머니의 한탄

글썸 할머니 / 그걸 어찌란 말씀이셔요. → 화자의 무기력한 목소리(전쟁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숫제 말이 적어지신 /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 반복을 통한 주제(생명의 소중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강조

인젠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 → 전쟁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

할머니는 역시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리라. → 전쟁의 비극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할머니



작품의 특징

- 상징적인 시어('꽃씨', '방공호')와 할머니의 행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 자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통해 생명과 회복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드러냄.
- 할머니의 태도를 통해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표현함.
-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해 감정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함.
- 대비되는 대상을 활용해 생명의 고귀함을 강조함.



김광섭, 「생의 감각」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감각적, 상징적
- 제재 : 생의 감각
- 주제 : 생명의 신비로운 부활/ 투병을 통한 강렬한 생명 의식

#EBS

해제

이 작품은 뇌일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건강을 회복한 시인의 투병 체험을 바탕으로 생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에 대한 의지를 환기하고 있는 시이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으며, 대조적 시어를 활용하여 생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주제

생에 대한 강렬한 의지

구성

- ▶ 1연: 생명의 소생
- ▶ 2연: 관계 속에서 확인하는 존재의 의미
- ▶ 3연: 죽음의 고통 속에서 느끼는 절망감
- ▶ 4연: 채송화를 통해 다진 생에 대한 의지



김광섭, 「생의 감각」

여명(黎明)의 종이 울린다.

↳ 새벽빛(부활, 희망) ↳ 청각적 이미지

새벽 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 시각적 이미지 ↳ 종결어미 '~다' 반복을 통한 각운 형성(단정적 어조-삶에 대한 의지 강조)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 생명이 움직이는 소리(청각적 이미지)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의미 강조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내가 존재해야 세상이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 힘겨운 현실

깨진 하늘 이 아물 때에도 /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 절망의 체험 ↳ 삶의 의지

푸른빛은 **장마**에 / 넘쳐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안**에 갔다.

↳ 희망 ↳ 절망의 체험 ↳ 절망의 체험 ↳ 부정적 공간

나는 무너지는 **독**에 혼자 섰다.

↳ 절망적인 상황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 화자의 생명 의식을 일깨워 주는 존재

생(生)의 감각(感覺)을 **흔들어 주었다.**

↳ '일깨워 주었다'는 의미



작품의 특징

- 의식의 세계(생명의 빛)와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 사물을 통하여 구상화됨.
- 자연물을 통해 생명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드러냄.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생명의 소생을 형상화함.
- 청각적·시각적 심상을 활용해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환기함.
- 대구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무너지는 독'과 '채송화'를 대비해 화자가 느낀 생의 감각을 강조함.



김남조, 「정념의 기(旗)」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순수시
- 성격 : 종교적, 기원적
- 제재 : 고독과 번뇌, 정념(情念)
- 주제 :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동경과 기원

#EBS

해제

이 작품은 인간의 고독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순수하고 평화로운 삶에 이르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는 시이다. 화자의 마음을 정념(情念)의 깃발에 빚대어 화자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으며, 경건한 어조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삶에 대한 염원을 진실하고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제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동경과 기원

구성

- ▶ 1연: 고독과 번뇌를 느끼는 화자
- ▶ 2연: 눈길을 보며 혼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함을 느낌.
- ▶ 3연: 내면의 고요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삶에 대한 소망
- ▶ 4연: 경건한 삶에 대한 회구



김남조, 「정념의 기(旗)」

↳ 온갖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

내 마음은 한 쪽의 기 → 화자(나)가 자신의 마음을 '기(깃발)'에 비유함(은유)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왔더니라 → 화자의 혼란스러운 마음(정념)이 오랫동안 고독하게 형성되어 왔음.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 고뇌와 번민, 갈등과 욕망

견디지 못해 **혼란과 열기를** 다스리기 위한 공간

눈 오는 네거리에 나서면
 ↳ 평안, 정화의 의미를 지님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 오는
 ↳ 직유

편안한 그늘이여 → 영탄
 ↳ 마음의 평온을 비유한 말

마음의 기는 이제금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눈이 들려주는 음악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냄.
 ↳ 마음의 평온을 비유한 말

나에게 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
 ↳ 시간적 배경, 생을 마무리하는 시간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 가는
 ↳ 차분하고 순수한 마음의 상태

그 일이란다
 황제의 **항서(降書)**와도 같은 → 직유
 ↳ 항복을 선언하고 항복에 대한 여러 조건을 정한 문서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랫벌** 같은 →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생동감 있게 드러냄)
 마음씨의 **빛은 없을까** → 의문형 종결 어미 반복 (운율 형성)

내 마음은 한 쪽의 기 → 수미상관의 구조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 화자의 간절한 내면적 심리 표현



작품의 특징

- '기'에 자신의 마음을 빚대어 순수한 삶을 기원함.
- 시행을 자유롭게 배열하면서도 유려(流麗)한 리듬을 살림.
- '혼란'에서 '안정'으로 시상이 전개됨.
-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인 '정념'을 '깃발'이라는 구체적 사물로 나타냄.
- 반복법, 직유법, 은유법 등을 활용하였음.
- 의문형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였음.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비유적, 성찰적, 반성적, 자조적
- 제재 : 자아 성찰
- 주제 : ① 젊은 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
② 젊은 날의 방황과 번민에 대한 성찰

#EBS

해제

이 작품은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화자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시이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감탄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젊은 날에 대한 탄식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주제

젊은 날에 대한 반성적 성찰

구성

- ▶ 1~2행: 현재를 기록한 메모를 보게 될 미래의 ‘나’
- ▶ 3~6행: 방황과 고뇌로 점철된 젊은 날에 대한 회상
- ▶ 7~11행: 질투뿐이었던 젊은 날의 모습
- ▶ 12~14행: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반성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 인생을 관조할 만한 시점의 나이가 든 후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 힘을 잃은 기억의 좌표 ↳ 화자의 젊은 날의 고백과 방황의 기록이 담긴 종이

그 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 무언가를 생산하고 창조하기 위해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 날 심적 상태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 의미 없이 허황되게 살아 온 젊은 날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 열정은 있지만 행동하지 못함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 젊은 날의 화자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 젊은 시절을 자신의 뜻과 이상대로 살지 못했음을 반성.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 지금까지의 삶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산 삶이었음을 깨달음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 화자가 젊은 날에 품었던 꿈과 열정은 결국 질투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 분위기를 전환

↳ 현재의 기록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 라인으로부터의 인정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화자의 반성이 압축적으로 표현



작품의 특징

-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여 영탄적이고 애상적인 어조.
- 먼 미래의 시점을 상정하여 시상 전개.
- 화자는 자신의 젊은 날이 질투뿐이었다고 고백 함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 갈래 : 자유시, 참여시
- 성격 : 저항적, 의지적
- 제재 : 진실하고 순수한 민족의 삶
- 주제 : 순수함이 전제된 민주사회 도래의 갈망

#EBS

해제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 ‘껍데기’로 상징되는 허위와 거짓은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과 순결함, 즉 ‘알맹이’만 남아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인이 형상화하려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4·19 혁명의 민주화 열망이 퇴색해 가고, 동학 농민 운동의 민중적 열정도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인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첨예하던 냉전 시절에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초월하여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밝히고 있다.

주제

참되고 순수한 민족의 삶 추구

구성

- ▶ 1연: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 강조
- ▶ 2연: 동학 농민 운동의 순수한 정신 강조
- ▶ 3연: 우리 민족의 순수함 강조와 통일에의 소망
- ▶ 4연: 순수의 옹호와 부정함 권력의 거부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 명령형 총정 - 화자의 의지 강조

↳ 허위, 비리, 불의 등 모든 부정적 존재들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껍데기는 가라.

↳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 순결, 진실, 민족정신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곱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 껍데기는 가라.

↳ 동학 농민 혁명의 숭고한 정신

그리하여, 다시 /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 한반도

↳ 허위와 가식을 벗어 버린 순수한 모습

아사달 아사녀가 /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 순수한 우리 민족

↳ 이념의 대립을 뛰어넘은 화합의 장

부끄럼 빛내며 / **맞질**할지니

↳ 순수한 아름다움

↳ 민족의 통일과 화합

껍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 대유법: 우리나라를 뜻함. 민족분단의 현실극복의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 순수하고 깨끗한 민족애

↳ 껍데기, 전쟁, 외세, 군사독재의 폭력 등을 의미(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작품의 특징

- 껍데기, 흙, 가슴, 쇠붙이 등과 같이 상징적 시어 사용
- 반복적 명령형의 문장으로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냄
- 대조적 심상으로 주제의식을 선명히 함
- 직설적 표현으로 부정적 인식을 표현